

사상체질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소증(素證) 특성 비교

신승원 · 이준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Ordinary Symptoms in Overweight and Obesity Patient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Seung Won Shin, Junhee Lee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Received: May 30, 2013

Revised: June 5, 2013

Accepted: June 6, 2013

Objectives: This study was aim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ordinary symptoms between the control and patient groups, diagnosed as overweight or obesity, in Soyang, Taeum, and Soeum Constitutions and among those 3 groups.

Methods: As a p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 based on medical records, 9213 patients, who visited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from May in 2007 to June in 2010, were included. To diagnose the constitution, Revised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and examinations by oriental medical doctors who majored in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were performed. Based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riteria for Asian obesity assessment, body mass index (BMI) was classified into 3 groups; more than 25 as obesity, 23 to 25 as overweight, and less than 23 as normal. Ordinary symptoms questionnaire, which consists of 46 questions in 8 categories, were given to the subjects. One-way ANOVA test in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 test in categorical variables were carried out to analyze statistical significance.

Results and Conclusions: 1) In general characteristics, we could find ou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sex, height, weight, BMI, waist circumference, blood pressur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asting blood sugar, and hemoglobin A1c among the 3 Constitutional groups. 2) Soyang Constitution of overweight and obesity has tendency to have higher appetite, like cool or cold water, defecate more, swear more, dislike heat, and have warmer or hotter extremities in the ordinary symptom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3) Taeum Constitution of overweight and obesity has tendency to have higher appetite, like cool or cold water, defecate more, swear more, dislike heat, and have warmer or hotter extremities in the ordinary symptom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4) Soeum Constitution of overweight and obesity has tendency to have higher appetite and less fatigue in the ordinary symptom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5) Soeum Constitution showed the slightest increase in appetite, preference about room temperature water, less number of feces, and feeling of chill and warmer extremities in ordinary symptoms, compared with Soyang and Taeum Constitutions. Taeum Constitution showed the distinct increase in appetite and sweating in ordinary symptoms, compared with Soyang and Soeum Constitutions.

Correspondence to: Junhee Lee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Hospital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23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872, Korea
Tel: +82-2-958-9280
Fax: +82-2-958-9234
E-mail: ssljh@hanmail.net

Copyright © 2013 by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for Obesity Research

Key Words: Overweight and obesity, Sasang Constitution, Ordinary Symptoms

서론

비만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로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의학적 상태를 가리킨다¹⁾. 비만의 병인으로는 의원성, 음식 섭취, 신경내분비성, 심리적, 유전적 원인이 있는데, 특히 섭취 조절과 에너지의 비정상적 소모가 주요하게 언급된다²⁾. 한편, 비만은 고혈압,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관절염 및 수면무호흡증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³⁾.

사상체질의학은 이제마의 『東醫壽世保元』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을 태소음양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장부생리(臟腑生理) 및 병증약리(病證藥理)를 규명하고자 하는 의론으로 일컬어진다. 『東醫壽世保元』에 비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사상체질의학의 임상가들은 비만과 체질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Kim과 Baek⁴⁾은 사상체질과 비만의 상관성에 관한 임상적 연구를 통해 비만증 환자의 70% 이상이 태음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Kim과 Kim⁵⁾은 유사한 연구를 통해 역시 태음인에서 비만이 다빈도 발생한다고 하며, 관련 증상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Lee 등⁶⁾은 사상체질별 비만요인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체질별 비만 위험요인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체질에 따른 비만 환자의 소증 특성을 항목별로 비교한 연구는 아직 전무하다.

한편, 소증(素證)에 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⁷⁻⁹⁾, Lee 등¹⁰⁾은 소증이 '병리적 소인'의 의미를 가지기에 현증(現證)의 진단과 그 처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임상적 의의를 가진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체질별 건강군과 환자군의 비교 및 환자군의 체질 간 비교를 통해 체질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소증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후향적 단면조사연구이며,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IRB 승인(KOMCIRB 2011-22

호)하에 진행하였다.

1. 연구대상자

경희의료원 동서건강증진센터에 2007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한국인 환자 중 사상체질진단 검사를 시행한 13,3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중복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2,290명, 신체계측치 및 기타 검사자료가 누락된 1,854명을 제외한 9,213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1) 사상체질진단

사상체질은 2회의 과정을 거쳐 진단하였다. 최초 방문일인 건강검진 당일에 개정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 II (Revised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QSCC II+)를 시행하고, 사상체질과 전공의가 대상자의 체형, 용모, 성격, 행동특성, 소증 등을 문진하여 1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1~2주 후 대상자가 2차 방문을 하였을 때, 사상체질과 전문의가 QSCC II+와 1차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체질진단을 시행하였다.

2) 신체계측

자동신장체중계측기를 이용하여 신발을 벗고, 지정된 환의만을 입은 상태에서 신장 및 체중을 측정하였으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체중(kg)/신장(m)²의 공식을 이용하여 BMI를 산출하였다. BMI를 기준으로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아시안인을 위한 비만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25 이상을 비만군으로, 23 이상 25 미만은 과체중군으로, 23 미만은 정상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어 비만군과 과체중군을 환자군으로, 정상군을 건강군으로 묶어 분석하였다.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 (cm)의 경우 피험자가 똑바로 선 상태에서 두 팔을 꼬아 가슴에 둔 상태에서, 피험자의 배꼽을 기준으로 수평이 되게 측정하였다. 이 때 피험자의 상의는 측정 전 접어 올린 상태로 두었다.

3) 소증설문 검사

소증설문지는 건강검진 시 예진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

로 ‘평소(최근 1년) 귀하께서 평균적으로 느끼시는 증상에 대한 질문입니다’라는 질문에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46개 문항이며, 이 중 수면상태 관련 4문항, 소화상태 관련 8문항, 배변상태 관련 6문항, 소변상태 관련 4문항, 한출(汗出)상태 관련 4문항, 한열관련 2문항, 성정(性情)관련 6문항, 기타 12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4) 통계분석

사상체질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비교에 있어, 연속형 변수는 One-way ANOVA test (사후검정은 Sheffe법을 실시함),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소증설문지 문항비교는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는데, 정성적인 상태를 묻는 문항(Q12, Q13, Q14, Q15, Q19, Q27, Q28)은 답변문항을 변화 없이 분석하였고, 기타 문항은 문제답변을 기준으로 이항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 13.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는 모두 9,213명으로, 이 중 소양인

은 2,974명, 태음인은 4,281명, 소음인은 1,958명이었다. 평균(±표준편차)을 계산한 결과, 소양인에서 47.2세(±11.6세)로 평균나이가 가장 많았으며, 피험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60.6%로 가장 높았다. 키와 체중의 경우 태음인이 165.2 cm (±8.8 cm), 70.7 kg (±11.0 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바탕한 BMI 역시 태음인에서 25.8 kg/m² (±2.8 kg/m²)로 가장 높았으며, WC에 있어서도 태음인(87.0±10.6)에서 뚜렷하게 높은 값이 나타났다. 기타 수축기 혈압, 이완기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공복혈당 및 hemoglobin A1c에 있어서도 체질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2. 체질 내 건강군과 환자군 비교

1) 소양인

소양인으로 판정된 피험자(n=2974)의 소증설문지 결과를 통계분석한 결과, 건강군과 환자군 간 문항의 응답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총 46개 문항 가운데 26문항으로 수면지표(Q1, Q4), 식욕지표(Q5, Q7), 소화지표(Q8, Q9), 음수지표(Q11, Q12), 대변지표(Q13, Q15, Q17), 소변지표(Q22), 한출지표(Q23, Q26), 한열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s

	SY (n=2,974)	TE (n=4,281)	SE (n=1,958)	Total (n=9,213)	P-value*	Post hoc analysis [†]
Age (yr)	47.2±11.6	45.7±10.6	42.9±10.9	45.6±11.1	<0.001	SY>TE>SE
Male (n (%))	1,801 (60.6)	2,367 (55.3)	582 (29.7)	4,750 (51.6)	<0.001 [†]	-
Height (cm)	164.5±8.2	165.2±8.8	161.6±7.8	164.2±8.5	<0.001	TE>SY>SE
Weight (kg)	61.9±8.9	70.7±11.0	54.7±7.5	64.4±11.6	<0.001	TE>SY>SE
BMI (kg/m ²)	22.8±2.2	25.8±2.8	20.9±2.0	23.8±3.2	<0.001	TE>SY>SE
WC (cm)	80.3±10.1	87.0±10.6	74.9±20.2	82.3±14.0	<0.001	TE>SY>SE
sBP (mmHg)	119.7±14.5	123.1±14.5	113.2±13.0	119.9±14.7	<0.001	TE>SY>SE
dBp (mmHg)	70.2±9.8	72.7±9.9	67.2±9.1	70.7±9.9	<0.001	TE>SY>SE
TC (mg/dl)	193.9±33.7	198.4±35.4	186.1±31.7	194.4±34.4	<0.001	TE>SY>SE
TG (mg/dl)	124.0±93.0	148.1±97.3	90.2±54.8	128.0±91.2	<0.001	TE>SY>SE
HDLC (mg/dl)	52.3±13.9	48.4±12.3	57.1±14.3	51.5±13.7	<0.001	SE>SY>TE
LDLC (mg/dl)	114.6±31.2	120.0±32.0	107.2±28.8	115.5±31.4	<0.001	TE>SY>SE
FBS (mg/dl)	93.3±20.1	96.4±22.5	87.1±10.8	93.5±20.1	<0.001	TE>SY>SE
HbA1c (%)	4.2±2.5	4.1±2.6	3.5±2.5	4.0±2.5	<0.001	SY, TE>S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BS: Fasting blood sugar, HbA1C: Hemoglobin A1c, SY: Soyangin, TE: Taeumin, SE: Soeumin,

*By one-way ANOVA test, [†]By chi-square test, [‡]By Sheffe's method.

표(Q27, Q28), 성정지표(Q29, Q30, Q32), 특이증상지표(S1, S3, S4, S8, S9, S10, S11)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대변 지표에 관한 문항에서 1일 배변 횟수에 있어(Q13) 환자군이 건강군에 비해 '하루 2회 이상 본다'고 대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변비와 설사의 경향(Q15)에 있어 건강군이 '변비를 자주 생기는 편이다'라고 많이 답한 반면, 환자군은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이다'라고 많이 답한 경향이 있었다. 더불어 배변 후 잔변감(Q17)에 있어 환자군(8.5%)이 건강군(11.2%)에 비해 오히려 잔변감을 '자주 느낀다'는 답변을 적게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군과 환자군 간 소증 특성이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P < 0.05$) 문항은 총 46개 문항 가운데 6개 문항이다. 첫째, 평소 식욕(Q5)에 있어서 '보통이다' 혹은 '없는 편이다'의 답변에 비해 '식욕이 좋은 편이다'로 답한 비율이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냉수를 좋아하는지 여부(Q12)에 있어서 건강군에서는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환자군에서는 '차거나 시원한 물을 좋아한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셋째, 하루 배변 횟수(Q13)에 있어서 건강군과 환자군 모두 '1일 1회 본다'는 비율이 각각 63.5%, 65.7%로 가장 많았으나, 건강군의 경우 '매일 보지 못한다'는 답변이 21.6%로 2위를 차지한 반면, 환자군의 경우 '하루 2회 이상 본다'는 답변이 24.4%로 2위를 차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넷째, 더운 날씨 및 운동 시 한출과 관련한 문항(Q23)에 있어, 건강군은 '거의 흘리지 않는다' 또는 '조금 흘리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면, 환자군은 '많이 흘리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 다섯째, 오한과 오열(Q27)에 관련한 문항에 있어, 건강군은 '추위에 민감해서 싫어하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36.4%로 뚜렷한 특징을 보인 반면, 환자군은 '더위에 민감해서 싫어하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2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족의 한열과 관련한 문항(Q28)에서 건강군 환자군 모두 수족이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위 답변에 있어 건강군은 '찬 편이다'라고 답변한 경우가 37.9%를 차지하였고, 환자군은 '따뜻하거나 뜨거운 편이다'라고 답변한 경우가 37.0%를 차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태음인

태음인으로 판정된 피험자($n=4281$)의 소증설문지 결과를 통계분석한 결과, 건강군과 환자군 간 문항의 응답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총 46개 문항 가운데 23문항으로 수면지표(Q3, Q4), 식욕지표(Q5, Q6, Q7), 소화지표(Q8), 구건갈지표(Q10), 음수지표(Q11, Q12), 대변지표(Q13, Q15), 소변지표(Q19, Q22), 한출지표(Q23, Q24, Q25, Q26), 한열지표(Q27, Q28), 성정지표(Q29, Q30), 특이증상지표(S1, S2)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한출과 관련한 항목에서 다소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더운 날씨 혹은 운동 시의 한출 양상(Q23)에 있어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건강군(39.5%)에 비해 환자군(60.9%)에서 월등히 높았으며, 덥지 않은 날씨 혹은 움직임이 적을 시의 한출 양상(Q24)에 있어서도 땀을 '자주 흘린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환자군에서 약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면 시 땀(Q25)의 양상에 땀을 '자주 흘린다'고 답한 응답자가 환자군에서 비교적 많았으며, 마지막으로 한출 후 상쾌감(Q26)에 있어 환자군에서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고 답한 비율이 건강군(15.7%)에 비해 환자군(9.2%)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건강군과 환자군 간 소증 특성이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P < 0.05$) 문항은 총 46개 문항 가운데 6개 문항이다. 첫째, 평소 식사의 속도(Q7)에 있어서 환자군이 '급하게 하는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52.5%로 나타나 건강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냉수를 좋아하는지 여부(Q12)에 있어서 건강군에서는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던 반면, 환자군에서는 '차거나 시원한 물을 좋아한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52.4%로 가장 높았다. 셋째, 하루 배변 횟수(Q13)에 있어서 건강군과 환자군 모두 '1일 1회 본다'는 비율이 각각 54.1%, 58.0%로 가장 많았으나, 건강군의 경우 '매일 보지 못한다'는 답변이 31.3%로 2위를 차지한 반면, 환자군의 경우 '하루 2회 이상 본다'는 답변이 25.4%로 2위를 차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넷째, 더운 날씨 및 운동 시 한출과 관련한 문항(Q23)에 있어, 건강군은 '거의 흘리지 않는다' 또는 '조금 흘리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면, 환자군은 '많이 흘리는 편이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 다섯째, 오한과 오열에 관련한 문항(Q27)에 있어, 건강

Table 2. Comparison between the Control and Overweight/Obesity Patients Group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Soyangin					Taeumin					Soeumin				
		Control		Patients		p-value*	Control		Patients		p-value*	Control		Patients		p-value*
		n	%	n	%		n	%	n	%		n	%	n	%	
Q01	(a)	1256	78,5	1152	84,7	0,000	482	79,9	3006	82,1	0,200	1285	77,9	247	81,8	0,133
	(b)	343	21,5	208	15,3		121	20,1	655	17,9		364	22,1	55	18,2	
Q03	(a)	1222	76,5	1069	78,3	0,247	506	83,9	2911	79,7	0,016	1286	77,8	236	78,1	0,894
	(b)	376	23,5	297	21,7		97	16,1	742	20,3		367	22,2	66	21,9	
Q04	(a)	1076	67,7	1025	75,4	0,000	414	68,5	2910	79,7	0,000	902	55,0	180	59,4	0,153
	(b)	513	32,3	334	24,6		190	31,5	743	20,3		739	45,0	123	40,6	
Q05	(a)	941	59,1	576	42,4	0,000	286	47,4	1327	36,2	0,000	1126	68,4	152	50,5	0,000
	(b)	652	40,9	784	57,6		318	52,6	2335	63,8		521	31,6	149	49,5	
Q06	(a)	1418	89,6	1191	88,1	0,185	514	86,1	2934	81,0	0,003	1545	94,3	273	91,3	0,051
	(b)	164	10,4	161	11,9		83	13,9	688	19,0		94	5,7	26	8,7	
Q07	(a)	990	62,2	704	51,8	0,000	377	63,0	1734	47,5	0,000	1209	73,5	210	69,5	0,155
	(b)	602	37,8	654	48,2		221	37,0	1915	52,5		436	26,5	92	30,5	
Q08	(a)	1440	90,5	1271	93,8	0,001	537	89,6	3404	93,2	0,002	1402	85,4	260	86,1	0,748
	(b)	151	9,5	84	6,2		62	10,4	250	6,8		240	14,6	42	13,9	
Q09	(a)	1424	90,4	1244	92,6	0,033	550	91,8	3329	92,1	0,805	1446	88,2	271	91,2	0,130
	(b)	151	9,6	99	7,4		49	8,2	285	7,9		193	11,8	26	8,8	
Q10	(a)	1366	86,3	1159	86,6	0,835	492	82,4	3135	86,7	0,005	1403	85,9	270	90,6	0,029
	(b)	217	13,7	180	13,4		105	17,6	480	13,3		230	14,1	28	9,4	
Q11	(a)	1173	73,4	923	68,1	0,001	489	81,0	2559	69,9	0,000	1428	86,5	264	87,4	0,682
	(b)	425	26,6	433	31,9		115	19,0	1101	30,1		222	13,5	38	12,6	
Q12	(a)	753	47,2	556	41,2	0,000	274	45,8	1414	38,8	0,000	821	49,8	156	52,3	0,564
	(b)	631	39,6	650	48,2		236	39,5	1913	52,4		438	26,6	80	26,8	
	(c)	211	13,2	142	10,5		88	14,7	322	8,8		388	23,6	62	20,8	
Q13	(a)	999	63,5	872	65,7	0,000	325	54,1	2090	58,0	0,000	894	55,0	176	59,9	0,000
	(b)	340	21,6	132	9,9		188	31,3	598	16,6		581	35,7	72	24,5	
	(c)	233	14,8	324	24,4		88	14,6	917	25,4		151	9,3	46	15,6	
Q14	(a)	1099	70,4	956	72,6	0,091	419	70,5	2435	68,1	0,230	1113	68,9	195	67,5	0,015
	(b)	160	10,2	104	7,9		57	9,6	319	8,9		211	13,1	25	8,7	
	(c)	302	19,3	257	19,5		118	19,9	823	23,0		291	18,0	69	23,9	
Q15	(a)	1184	80,1	1053	86,2	0,000	413	72,6	2655	79,0	0,000	1141	73,4	210	74,7	0,662
	(b)	170	11,5	73	6,0		102	17,9	356	10,6		255	16,4	41	14,6	
	(c)	65	4,4	66	5,4		23	4,0	190	5,7		54	3,5	13	4,6	
	(d)	59	4,0	30	2,5		31	5,4	161	4,8		105	6,8	17	6,0	
Q17	(a)	1370	88,8	1200	91,5	0,017	512	86,5	3129	88,1	0,253	1434	89,1	249	86,5	0,188
	(b)	173	11,2	112	8,5		80	13,5	421	11,9		175	10,9	39	13,5	
Q19	(a)	946	61,5	819	63,2	0,430	351	60,4	2316	65,6	0,036	1013	63,2	172	60,4	0,043
	(b)	422	27,5	328	25,3		145	25,0	796	22,6		329	20,5	76	26,7	
	(c)	169	11,0	149	11,5		85	14,6	416	11,8		262	16,3	37	13,0	
Q20	(a)	1466	94,8	1243	94,8	0,953	570	96,8	3380	95,1	0,079	1564	97,3	268	95,0	0,038
	(b)	81	5,2	68	5,2		19	3,2	173	4,9		43	2,7	14	5,0	

Continued.

		Soyangin					Taeumin					Soeumin				
		Control		Patients		p-value*	Control		Patients		p-value*	Control		Patients		p-value*
		n	%	n	%		n	%	n	%		n	%	n	%	
Q22	(a)	1353	87.9	1101	85.0	0,024	532	90.8	3082	87.5	0,025	1456	90.7	241	84.6	0,002
	(b)	186	12.1	194	15.0		54	9.2	439	12.5		150	9.3	44	15.4	
Q23	(a)	1000	64.4	625	47.7	0,000	358	60.5	1394	39.1	0,000	1263	78.1	190	65.5	0,000
	(b)	553	35.6	686	52.3		234	39.5	2175	60.9		354	21.9	100	34.5	
Q24	(a)	1473	96.3	1225	95.0	0,088	549	95.1	3243	92.7	0,030	1557	97.2	277	97.9	0,510
	(b)	56	3.7	64	5.0		28	4.9	257	7.3		45	2.8	6	2.1	
Q25	(a)	1471	95.5	1217	93.9	0,054	567	97.1	3282	93.2	0,000	1574	97.8	281	98.6	0,367
	(b)	69	4.5	79	6.1		17	2.9	238	6.8		36	2.2	4	1.4	
Q26	(a)	1285	86.6	1178	93.0	0,000	478	84.3	3106	90.8	0,000	1140	73.0	225	81.5	0,003
	(b)	198	13.4	88	7.0		89	15.7	314	9.2		422	27.0	51	18.5	
Q27	(a)	266	17.6	324	25.4	0,000	75	13.0	743	21.4	0,000	169	10.7	38	13.5	0,003
	(b)	551	36.4	323	25.3		221	38.4	797	22.9		833	52.5	121	42.9	
	(c)	296	19.6	337	26.4		107	18.6	1085	31.2		129	8.1	38	13.5	
	(d)	401	26.5	291	22.8		172	29.9	853	24.5		455	28.7	85	30.1	
Q28	(a)	640	41.7	567	44.1	0,000	229	39.3	1481	42.3	0,000	547	34.1	108	37.6	0,000
	(b)	581	37.9	243	18.9		223	38.3	660	18.9		880	54.9	118	41.1	
	(c)	313	20.4	476	37.0		131	22.5	1360	38.8		176	11.0	61	21.3	
Q29	(a)	1043	68.7	970	75.9	0,000	372	64.6	2444	70.5	0,004	961	60.6	177	62.8	0,491
	(b)	475	31.3	308	24.1		204	35.4	1022	29.5		625	39.4	105	37.2	
Q30	(a)	1299	85.6	1135	88.9	0,009	478	83.1	3014	86.8	0,017	1316	83.0	249	87.7	0,048
	(b)	219	14.4	142	11.1		97	16.9	457	13.2		270	17.0	35	12.3	
Q32	(a)	1395	92.1	1202	94.3	0,027	527	92.3	3236	93.3	0,359	1407	88.7	257	91.1	0,230
	(b)	119	7.9	73	5.7		44	7.7	231	6.7		179	11.3	25	8.9	
S1	(a)	923	61.4	895	70.5	0,000	319	56.1	2173	63.2	0,001	793	50.2	173	61.6	0,000
	(b)	580	38.6	374	29.5		250	43.9	1265	36.8		786	49.8	108	38.4	
S2	(a)	1290	87.3	1119	89.4	0,079	474	83.3	2971	87.6	0,005	1303	83.2	238	85.6	0,318
	(b)	188	12.7	132	10.6		95	16.7	420	12.4		263	16.8	40	14.4	
S3	(a)	1307	89.5	1151	93.3	0,000	505	90.3	3063	91.2	0,529	1332	85.8	254	91.0	0,017
	(b)	154	10.5	83	6.7		54	9.7	297	8.8		221	14.2	25	9.0	
S4	(a)	948	63.7	874	69.8	0,001	370	65.7	2276	67.0	0,538	946	60.4	182	65.5	0,111
	(b)	541	36.3	378	30.2		193	34.3	1119	33.0		620	39.6	96	34.5	
S5	(a)	1302	89.1	1105	89.9	0,472	505	91.0	3043	90.9	0,972	1409	91.0	237	86.2	0,013
	(b)	160	10.9	124	10.1		50	9.0	303	9.1		139	9.0	38	13.8	
S8	(a)	1012	67.9	902	72.5	0,008	358	64.0	2198	64.7	0,749	984	63.0	176	63.5	0,853
	(b)	479	32.1	342	27.5		201	36.0	1197	35.3		579	37.0	101	36.5	
S9	(a)	1244	84.5	1083	87.3	0,036	458	81.9	2819	83.6	0,334	1291	83.0	232	84.4	0,583
	(b)	228	15.5	157	12.7		101	18.1	554	16.4		264	17.0	43	15.6	
S10	(a)	1338	91.9	1148	93.9	0,041	470	83.9	2856	85.2	0,434	1390	90.6	244	89.7	0,661
	(b)	118	8.1	74	6.1		90	16.1	496	14.8		145	9.4	28	10.3	
S11	(a)	1245	85.0	1080	87.7	0,043	481	87.0	2872	86.0	0,542	1343	86.4	235	86.4	0,989
	(b)	219	15.0	151	12.3		72	13.0	467	14.0		212	13.6	37	13.6	

*By chi-square test (All of the answers were transformed into binomial variables except for qualitative outcomes, i.e. Q12, Q13, Q14, Q15, Q19, Q27, Q28).

군은 '추위에 민감해서 싫어하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38.4%로 뚜렷한 특징을 보인 반면, 환자군은 '더위에 민감해서 싫어하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3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족의 한열과 관련한 문항(Q28)에서 건강군 환자군 모두 수족이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위 답변에 있어 건강군은 '찬 편이다'라고 답변한 경우가 38.3%를 차지하였고, 환자군은 '따뜻하거나 뜨거운 편이다'라고 답변한 경우가 38.8%를 차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소음인

소음인으로 판정된 피험자(n=1958)의 소증설문지 결과를 통계분석한 결과, 건강군과 환자군 간 문항의 응답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총 46개 문항 가운데 15문항으로 식욕지표(Q5), 구건갈지표(Q10), 대변지표(Q13, Q14), 소변지표(Q19, Q20, Q22), 한출지표(Q23, Q26), 한열지표(Q27, Q28), 성정지표(Q30), 특이증상지표(S1, S3, S5)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소변지표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간 소변의 횟수(Q19)에 대해서 '자주 보는 편이다'라고 답한 피험자의 비율이 환자군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수면 중 소변 횟수(Q20)에 관한 항목에서 환자군이 횟수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잔뇨감(Q22)에 대해서는 '시원하지 못한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건강군(9.3%)에 비해 환자군(15.4%)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건강군과 환자군 간 소증 특성이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P < 0.05$) 문항은 총 46개 문항 가운데 단 2개 문항이다. 평소 식욕과 관련된 문항(Q5)에서 건강군에서는 '보통이다' 또는 '없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68.4%였던 반면, 환자군에서는 그 비율이 50.5%로 감소하고 '식욕이 좋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과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군 간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피로감과 관련한 문항(S1)에서 건강군은 "거의 없다"와 '가끔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자주 그렇다'로 답한 비율과 거의 비슷했던 반면, 환자군에서는 전자가 61.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3. 환자군의 체질 간 비교

과체중 및 비만군으로 판정된 피험자의 체질 간 소증 설문지 문항 차이를 살핀 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 46개 문항 가운데 7개 문항에서 체질 간 소증 특성이 대비되는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5$)를 보였다. 첫째, 식욕과 관련한 문항(Q5)에서 소양인과 태음인은 각각 57.6%, 63.8%의 비율로 식욕이 '좋은 편이다'라고 답변한 반면, 동일한 답변을 한 소음인은 단지 50.5%에 그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식사 속도(Q7)에 있어 소양인과 소음인은 각각 51.8%와 69.5%의 비율로 식사 속도가 '보통이다' 또는 식사를 '천천히 하는 편이다'라고 답한 반면, 태음인은 52.5%의 비율로 식사를 '급하게 하는 편이다'라고 답하여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냉수를 좋아하는지의 질문(Q12)에 소양인과 태음인은 모두 '차거나 시원한 물을 좋아한다'와 '보통이다'의 순서로 많은 비율의 답변이 나온 반면, 소음인은 '보통이다'와 '차거나 시원한 물을 좋아한다'의 순서로 많은 비율의 답변이 나왔다. 넷째, 1일 배변횟수(Q13)에 있어서 세 체질 모두 '1일 1회'의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소양인과 태음인의 경우 '하루 2회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24.4%, 25.4%로 두 번째를 차지한 반면, 소음인은 '매일 보지 못한다'라고 답한 것이 오히려 24.5%로 두 번째를 차지하여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다섯째, 날씨가 덥거나 운동 시 땀을 많이 흘리나는 질문(Q23)에 있어 소양인과 소음인은 '거의 흘리지 않는다' 또는 '조금 흘리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각각 47.7%, 65.5%로 높았던 반면, 태음인은 '많이 흘리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60.9%로 나타나 양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섯째, 오한과 오열 경향에 관한 문항(Q27)에 있어서는 소양인의 경우 모든 답변이 엇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가운데 '더위에 민감해서 싫어하는 편이다'의 답변 비율이 26.4%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의 경우 동일한 답변이 31.2%로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음인의 경우 42.9%의 비율로 '추위에 민감해서 싫어하는 편이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상반된 차이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수족의 한열(Q28)에 있어서 소양인과 태음인은 '보통이다'의 답변이 가장 많고, '따뜻하거나 뜨거운 편이다'의 답변이 그 뒤를 이어 나타났는데, 소음인은 '찬 편이다'의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난 후 '보통이다'의 답변이 그 뒤를 이어 나타났다.

Table 3. Comparison of Orinary Symptoms among Soyang, Taeum and Soeum Constitution in Overweight/Obesity Patient Group

		Soyangin		Taeumin		Soeumin		P- value*
		n	%	n	%	n	%	
Q05	(a)	576	42,4	1327	36,2	152	50,5	0,000
	(b)	784	57,6	2335	63,8	149	49,5	
Q07	(a)	704	51,8	1734	47,5	210	69,5	0,000
	(b)	654	48,2	1915	52,5	92	30,5	
Q12	(a)	556	41,2	1414	38,8	156	52,3	0,000
	(b)	650	48,2	1913	52,4	80	26,8	
	(c)	142	10,5	322	8,8	62	20,8	
Q13	(a)	872	65,7	2090	58,0	176	59,9	0,000
	(b)	132	9,9	598	16,6	72	24,5	
	(c)	324	24,4	917	25,4	46	15,6	
Q23	(a)	625	47,7	1394	39,1	190	65,5	0,000
	(b)	686	52,3	2175	60,9	100	34,5	
Q27	(a)	324	25,4	743	21,4	38	13,5	0,000
	(b)	323	25,3	797	22,9	121	42,9	
	(c)	337	26,4	1085	31,2	38	13,5	
	(d)	291	22,8	853	24,5	85	30,1	
Q28	(a)	567	44,1	1481	42,3	108	37,6	0,000
	(b)	243	18,9	660	18,9	118	41,1	
	(c)	476	37,0	1360	38,8	61	21,3	

*By chi-square test (All of the answers were transformed into binomial variables except for qualitative outcomes, i.e. Q12, Q13, Q27, Q28).

이상의 결과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고 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양인의 경우 수면, 식욕, 소화, 음수, 대변, 소변, 한출, 한열, 성정, 특이증상 등의 지표에서 다양한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타 체질에 비해 소양인의 경우 대변지표의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특징은 첫째, 대변 횟수가 증가하고, 둘째, 대변이 설사 경향이 강해지며, 셋째, 잔변감은 줄어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건강군과 환자군 간의 상반된 소증 경향을 보임과 동시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항목은 식욕, 음수, 대변, 한출, 한열지표가 해당된다. 즉, 과체중 혹은 비만인 환자의 경우 첫째, 식욕 상승, 둘째, 희냉음(喜冷飲), 셋째, 배변 횟수 증

가, 넷째, 다한, 다섯째, 오열(惡熱), 여섯째, 수족온(手足溫) 등의 용어로 요약가능하다. 이상의 증상은 공통적으로 소양인 과체중 및 비만이 열증의 양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특히 신열두통설사망음증(身熱頭痛泄瀉亡陰證) 및 신한두통설사망음증(身寒腹痛泄瀉亡陰證)을 막론하고 소양인의 설사 경향 대변에 ‘청리열강표음(淸裏熱降表陰)’의 治法을 적용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¹¹⁾에 바탕할 때, 상기한 설사 역시 열증 양상의 하나로 봄이 마땅하다.

태음인의 경우 수면, 식욕, 소화, 구건갈, 음수, 대변, 소변, 한출, 한열, 성정, 특이증상 등의 지표에서 다양한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타 체질에 비해 태음인의 경우 한출지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 특징은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경우 날씨 및 움직임의 정도와 무관하게 땀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땀을 흘린 후 상쾌감은 오히려 증

가했다. 한편, 태음인군의 건강군과 환자군의 소증 특성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함께 보인 경우는 식욕, 음수, 대변, 한출, 한열지표가 해당된다. 즉, 과체중 혹은 비만인 환자의 경우 건강군에 비해 첫째, 식욕의 증가, 둘째, 희냉음(喜冷飲), 셋째, 배변 횟수 증가, 넷째, 다한출(多汗出), 다섯째, 오열(惡熱), 여섯째, 수족온(手足溫)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때 식욕의 증가는 식사 속도의 증가로 추정된 결과에 해당한다. 이상의 증상은 소양인과 마찬가지로 태음인의 과체중 및 비만이 대개 열증의 양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소음인의 경우 식욕, 구건갈, 대변, 소변, 한출, 한열, 성정, 특이증상 등의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소변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음인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경우 첫째, 주야간 모두 소변의 횟수와 둘째, 잔뇨감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소음인군의 건강군과 환자군의 소증 특성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함께 보인 경우는 식욕 및 피로감 지표에서만 나타났는데, 요약하자면 과체중 및 비만을 가진 소음인의 경우 식욕이 유의하게 증가하며, 둘째, 피로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소음인의 경우 소양인 혹은 태음인과 달리 과체중 및 비만 환자에게서 뚜렷한 열증의 양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과체중 및 비만군으로 판정된 환자군에서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간 소증 특성이 대비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항목을 비교한 것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세 체질 간 식욕 정도를 비교할 때, 소양인과 태음인과 달리 소음인 환자군의 식욕이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으므로, 소음인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 식욕의 증가가 도드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소양인과 소음인에 비해 태음인이 식사 속도에 있어 유의하게 높은 값이 나타났으므로 체중의 증가와 함께 식욕이 가장 왕성하게 증가하는 체질은 태음인이라 볼 수 있다. 셋째, 과체중 및 비만의 환자군 가운데 소양인과 태음인이 차거나 시원한 물을 가장 좋아했던 반면, 소음인은 상온의 물을 가장 좋아했던 것은 소양인 및 태음인 환자군에 비해 소음인 환자군에서 열증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과체중 및 비만 환자군의

경우 소양인과 태음인은 대변의 횟수가 증가한 반면, 소음인은 대변의 횟수가 감소하였다. 대변 횟수의 감소를 변비 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소음인의 변비가 대개 한성 변비에 속한다는 기존의 연구¹¹⁾에 바탕할 때, 대변 횟수의 차이 역시 소음인에서 타체질의 열증 양상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한출 양상에 있어서는 태음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여섯째, 한열지표에 있어서는 소양인과 태음인 환자군이 오열(惡熱) 및 수족온(手足溫)으로, 소음인이 오한(惡寒) 및 수족냉(手足冷)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앞서의 음수(飲水)지표와 동일한 병리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체질 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나이, 성별 등의 요인을 보정한 후 소증 지표의 변화가 체질 간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체질별 소증의 양상이 체질병증의 병리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헌적 연구 역시 향후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1. 과체중 및 비만인 소양인 환자군은 소증(素證)에 있어 식욕이 상승하고, 시원하거나 차가운 물을 좋아하며, 대변의 배변 횟수가 증가하고, 한출이 많아지며, 더운 것을 싫어하고, 손발이 따뜻하거나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다.
2. 과체중 및 비만인 태음인 환자군은 소증에 있어 식욕이 증가하고, 시원하거나 차가운 물을 좋아하며, 대변의 배변 횟수가 증가하고, 한출이 많아지며, 더운 것을 싫어하고, 손발이 따뜻하거나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다.
3. 과체중 및 비만인 소음인 환자군은 소증에 있어 식욕이 증가하고 피로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4. 체질 간 소증 특징을 비교할 때, 소음인에 있어 식욕 증가가 가장 미미하게 나타나고, 시원하거나 차가운 물보다 상온의 물을 좋아하며, 타 체질과 달리 대변의 횟수가 감소하고, 오한(惡寒) 및 수족냉(手足冷)의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태음인에 있어 식사 속도로 표현되는 식욕의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땀의 증가 역시 가장 도드라진다.

References

1. Haslam DW, James WP. Obesity. *Lance*. 2005 ; 13(9492) : 1197-209.
2. Hong EG. Pathophysiology of adult obesity and related-disease. *J Korean Diabetes*. 2008 ; 9(3) : 148-52.
3. Sim KW, Lee SH, Lee HS.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and morbidity in Korea. *Korean J Obesity*. 2001 ; 13(2) : 147-55.
4. Kim DL, Baek TH.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sasang constitutions and obesity. *J Sasang Constitut Med*. 1996 ; 8(1) : 184-94.
5. Kim EY, Kim JW. A Clinical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 and obesity. *J Sasang Constitut Med*. 2004 ; 16(1) : 100-11.
6. Lee KS, Seok JH, Kim SH, Kim YH, Lee SK, Lee EJ, et al. A case-control study on risk factors of obese patients of each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7 ; 19(2) : 94-112.
7. Kim SM, Song IB. A study of ordinary symptoms in the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 and DongmuYugo. *J Sasang Constitut Med*. 2000 ; 12(2) : 67-77.
8. Kim MG, Lee HJ, Jin HJ, Yoo JH, Kim J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ordinary symptoms from the viewpoint of sasang constitution and cold-hot. *Korean J Oriental Physiol Pathol*. 2008 ; 22(6) : 1354-8.
9. Baek YH, Kim HS, Lee SW, Ryu JH, Kim YY, Jang ES. Study on the ordinary symptoms characteristics of gender differenc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Korean J Oriental Physiol Pathol*. 2009 ; 23(1) : 251-8.
10. Lee JH, Lee EJ, Koh BH. The study on the clinical meanings of ordinary symptoms and developing aspects of present symptoms according to the ordinary symptoms in the soeumin symptomatology. *J Sasang Constitut Med*. 2012 ; 24(3) : 17-33.
11. Lee KR, Kim KY. A study on the cold and heat syndromes in Dongyisoosebowon. *J Sasang Constitut Med*. 1999 ; 11(1) : 79-102.

Appendix.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al Ordinary Symptoms (extracted based on the results)

Q01	1. 평소 주무실 때 꿈이 많으신 편입니까?	(a)	<input type="checkbox"/> 거의 없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꾸는 편이다.
		(b)	<input type="checkbox"/> 꿈이 많은 편이다.
Q03	3. 평소 주무시다가 자주 깨는 편입니까?	(a)	<input type="checkbox"/> 깊게 잘 자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렇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깨는 편이다.
Q04	4. 평소 주무실 때 이불을 잘 덮고 주무십니까?	(a)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input type="checkbox"/> 항상 손발까지 잘 덮고 자는 편이다.
		(b)	<input type="checkbox"/> 거의 안 덮거나, 배만 덮고 손발은 내놓는다.
Q05	5. 평소 식욕은 어떠합니까?	(a)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없는 편이다.
		(b)	<input type="checkbox"/> 좋은 편이다.
Q06	6. 평소 과식이나 폭식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a)	<input type="checkbox"/> 거의 하지 않는다. (소식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하는 편이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하는 편이다.
Q07	7. 평소 식사를 급하게 하시는 편입니까?	(a)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급하게 하는 편이다.
		(b)	<input type="checkbox"/> 천천히 하는 편이다.
Q08	8. 평소 소화상태는 어떠합니까?	(a)	<input type="checkbox"/> 항상 소화가 잘 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소화가 안 되거나, 체하는 편이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소화가 안 되거나, 체하는 편이다.
Q09	9. 평소 속이 아프거나 쓰린 것을 느끼니까?	(a)	<input type="checkbox"/> 거의 느끼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느낀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느낀다.
Q10	10. 평소 입안이 많이 마르신 편입니까?	(a)	<input type="checkbox"/> 거의 느끼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렇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다.
Q11	1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는 편입니까?	(a)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마시는 편이다.
		(b)	<input type="checkbox"/> 적게 마시거나 거의 마시지 않는다.
Q12	12. 평소 차거나 시원한 물을 좋아하십니까?	(a)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b)	<input type="checkbox"/> 차거나 시원한 물을 좋아한다.
		(c)	<input type="checkbox"/> 따뜻하거나 뜨거운 물을 좋아한다.
Q13	13. 평소 하루 배변 횟수는?	(a)	<input type="checkbox"/> 하루에 1회
		(b)	<input type="checkbox"/> 매일은 보지 못한다.
		(c)	<input type="checkbox"/> 하루 2회 이상
Q14	14. 평소 대변의 굳기는?	(a)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b)	<input type="checkbox"/> 굳은 편이다.
		(c)	<input type="checkbox"/> 무른 편이다.
Q15	15. 평소 변비나 설사가 자주 있습니까?	(a)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b)	<input type="checkbox"/> 변비가 자주 생기는 편이다.(3일에 1회 이상)
		(c)	<input type="checkbox"/>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이다.(하루에 4회 이상)
		(d)	<input type="checkbox"/>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난다.
Q17	17. 평소 배변 후에 잔변감이나 무지러운 증상을 느끼십니까?	(a)	<input type="checkbox"/> 거의 느끼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느낀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느낀다.

Continued.

Q19	19. 평소 소변을 자주 보십니까?	(a)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약 3-4시간에 한번)
		(b)	<input type="checkbox"/> 자주 보는 편이다. (수시로/약 1-2시간에 한번)
		(c)	<input type="checkbox"/> 자주 보지 않는다. (약 4-6시간에 한번)
Q20	20. 평소 수면 중에 소변을 보시는 횟수는?	(a)	<input type="checkbox"/> 보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1-2회
		(b)	<input type="checkbox"/> 3회 이상
Q22	22. 평소 소변을 시원하게 보시는 편입니까?	(a)	<input type="checkbox"/> 시원하게 보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b)	<input type="checkbox"/> 시원하지 못한 편이다.
Q23	23. 날씨가 덥거나 운동할 때에 땀을 많이 흘리십니까?	(a)	<input type="checkbox"/> 거의 흘리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흘리는 편이다.
		(b)	<input type="checkbox"/> 많이 흘리는 편이다.
Q24	24. 날씨가 덥지 않거나 가만히 있을 때에도 땀을 흘리실 때가 있습니까?	(a)	<input type="checkbox"/> 거의 없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렇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다.
Q25	25. 평소 주무시면서 땀을 흘리실 때가 있습니까?	(a)	<input type="checkbox"/> 거의 없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렇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다.
Q26	26. 평소 사우나, 찜질방 등에서 땀을 흘리신 후에 상쾌감을 느끼십니까?	(a)	<input type="checkbox"/> 몸이 가볍고 상쾌함을 느낀다. <input type="checkbox"/> 별 느낌이 없다.
		(b)	<input type="checkbox"/>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
Q27	27. 평소 추위를 싫어하시는 편입니까? 더위를 싫어하시는 편입니까?	(a)	<input type="checkbox"/> 별 느낌이 없다.
		(b)	<input type="checkbox"/> 추위에 민감해서 싫어하는 편이다.
		(c)	<input type="checkbox"/> 더위에 민감해서 싫어하는 편이다.
		(d)	<input type="checkbox"/> 추위, 더위 모두 싫어하는 편이다.
Q28	28. 평소 손발이 찬 편입니까?	(a)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b)	<input type="checkbox"/> 찬 편이다.
		(c)	<input type="checkbox"/> 따뜻하거나 뜨거운 편이다.
Q29	29. 평소 공기가 탁한 곳에서 잘 견디시는 편입니까?	(a)	<input type="checkbox"/> 오래 있어도 별 다른 불편감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오래 있으면 불편감을 느낀다.
		(b)	<input type="checkbox"/> 조금만 있어도 답답하거나 머리가 아프다.
Q30	30. 평소 불안, 초조한 마음을 자주 느끼십니까?	(a)	<input type="checkbox"/> 거의 느끼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느낀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느낀다
Q32	32. 매사에 의욕이 없는 편입니까?	(a)	<input type="checkbox"/> 거의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렇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다
S1	피로감을 느낀다.	(a)	<input type="checkbox"/> 거의 없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렇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다
S2	머리가 아프다.	(a)	<input type="checkbox"/> 거의 없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렇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다
S3	어지럽다.	(a)	<input type="checkbox"/> 거의 없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렇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다
S4	눈이 쉽게 건조해 지거나, 피로하다.	(a)	<input type="checkbox"/> 거의 없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렇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다

Continued.

S5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멍한 느낌이 있다.	(a)	<input type="checkbox"/> 거의 없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렇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다
S8	어깨나 뒷목이 뻣뻣하거나 무겁다.	(a)	<input type="checkbox"/> 거의 없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렇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다
S9	손발이 저리다.	(a)	<input type="checkbox"/> 거의 없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렇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다
S10	몸이 붓는다.	(a)	<input type="checkbox"/> 거의 없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렇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다
S11	피부가 가렵다.	(a)	<input type="checkbox"/> 거의 없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렇다
		(b)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다